

◎ 교회 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희망의 새해...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올해의 표어·생활지침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올해의 표어는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 5:17)로 정했다. 한편 이에 따른 생활지침은 “경건·사랑·절제”이다.

교회 표어는 한 해동안 우리교회 목회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 1992년도의 표어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였으며 1993년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994년엔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 1995년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996년엔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였다. 그리고 작년엔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였다.

신년예배와 성찬식

1997년도 첫 주일인 오늘 I·II·III부 예

배는 신년감사예배로 드린다. 신년예배 시에는 새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한다.

헌금시간에는 신년감사헌금을 드린다.

순결서약식

오늘 찬양예배 시 1998년도 순결서약식을 갖는다.

오늘 순결서약식에는 13세 이상의 미혼자로 앞으로 결혼 전 순결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고 지난 31일 순결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참가하게 된다.

순결서약식에서는 참가자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며 항상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교회와 부모 그리고 주변의 어른들이 마련한 ‘순결반지’가 주어진다.

순결서약식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펼치고 있는 ‘정직·절제·사랑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우리 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가장 먼저 1995년 첫 주에 서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현재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실시되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는 1995년에 322명, 1996년에 100명, 1997년에는 43명의 청소년이 순결서약식에 참가했다.

공동의회

오늘 III부 예배 후 공동의회가 소집된다. 오늘의 의제는 1997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1998년도 예산 승인의 건으로 우리 교회 등록된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1998년에 달라지는 몇 가지

어린이 저녁예배 실시

어린이를 위한 저녁예배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매주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302호실에서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유치·유년·초등부에 속한 어린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합으로 드리게 된다. 예배순서는 성경동화, 찬양, 율동, 성서인물이야기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최고의 정성과 최선의 방법으로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에서는 어릴 때부터 바른 예배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복잡한 도시생활 속에서 언제부터인가 사라진 어린이 저녁예배를 회복함으로써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새가정부 신설

신혼의 부부와 결혼적령기의 성도를 위한 새가정부가 신설된다.

새가정부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며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된다.

2월 7일(토) 시작될 새가정부의 집회는 매주 토요일 6시부터 성경적 결혼생활과 신앙 중심의 가정생활에 대한 강연과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새가정부는 당분간 새가족부에서 담당하여 운영하며 지도는 이순환 목사가 맡았다.

교사대학은 각 부서별로

1998년도에는 교사대학은 각 부서별로 매월 1회씩 철야기도회를 겸하여 갖게 된다. 이 시간에는 기도회 및 교회학교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논의와 좀더 효과적인 공과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 교사간의 교제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올해는 1997년도 매월 마지막 주에 가지던 교사대학 강좌는 실시하지 않는다.

매월 셋째 주 교구 특선

작년까지 매주 찬양예배시간에 가지던 교구소개 대신 매월 셋째 주 찬양예배 시간에 교구별 특선시간을 갖기로 했다. 1월의 교구 찬양은 12교구가 맡는다.

한편 예배 후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 마련된 교회당 앞뜰의 차(茶) 봉사는 1교구부터 차례로 담당하기로 했다.

대학·청년부 연령구분

대학부 회원은 만 24세(1974년생부터 금년도 고등학교 졸업생)까지로, 또 청년부 회원은 만 25세 이상(1973년 이전 출생자)의 미혼 청년으로 그 연령을 구분하였다.

두 부서의 집회시간은 중전과 같이 대학부는 주일 12시 50분, 청년부는 토요일 오후 5시 30분이다.

생명과 진리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탐욕과 허위가 여지없이 드러났던 지난 해를 뒤로 하고 부실화 눈가림으로 기만해 왔던 지난 날을 씻어 버리면서 새해를 맞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더 높은 삶의 세계를 그리워하는 능력을 주시고 더 깊은 삶의 차원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포장된 부패를 진실로 알고 거짓된 진리가 판을 치고 있을 때 저희에게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고백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해는 지난 해와는 다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해의 쓴 잔을 거듭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닭 울기 전 세 번 주님을 부인했지만 우리는 열 번, 백 번 주님을 모른다 한 것을 이제야 자복합니다. "오호라 육신이 약하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핑계만을 반복했던 지난 날의 죄짐을 이제야 주님의 제단 앞에 벗어 놓습니다. 불태워 주옵소서. 성결케 하옵소서.

신년 첫 시간 저희들이 배운 입은 심정으로 머리를 숙인 것은 자책과 회개의 무릎 꿇음이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 허망한 삶의 실체를 보여 주셨건만 그 헛되고 헛된 세속적 욕심과 권세와 영화에 이끌리던 어제의 눈 먼 삶을 회개합니다.

허황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속의 눈으로 교회를 보려했던 이 비뚤어진 우리의 두 눈을 주님 앞에 뽀아 놓고 다시 한 번 자복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위하여 놀리던 손과 발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움직여 보려고 가증스럽게 굴던 우리의 손발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잘라 놓고 이처럼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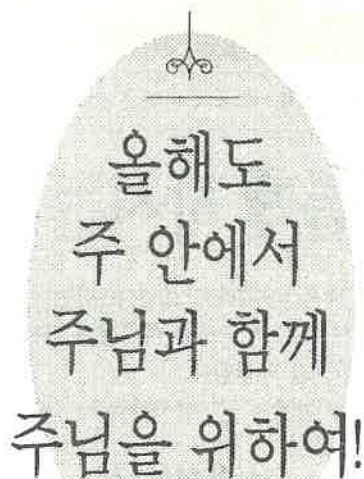
부질없는 세속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평하려 했던 우리들의 속된 생각과 발상과 교만하고 교활한 입술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옛것을 올려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새해와 오늘의 잘못을 넘어 오늘과 내일을

새해 아침의 기도



이 중 윤 목사

참 생명의 길에 바치고 오늘과 내일의 삶을 진리의 바른 세계에 이어 놓을 수 있도록 밝고 깨끗한 생각, 성령의 세례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사는 담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간의 결심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저희 삶 구석 구석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가르침으로 가득 가득 채워주시고 걸치레의 사랑으로 떠들어대는 요란한 쟁파리 소리가 아니라 삶 전체가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울려퍼지는 교향악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서울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민족을 위한 고통과 희생을 체현하고 전하는 교회로 갱신되게 하옵시고 교회 존재 이유 자체가 피 흘리는 희생과 사랑을 보여 주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 사역을 증거하며 실천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를 세우신 참 뜻을 깨닫게 하사 이 새해에는 이땅의 많은 교회들이 따르고 있는 세속화의 길을 성령과 말씀의 검으로 물리칠 수 있는 한국교회 갱신운동의 요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어렵고 외로운 길이라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우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주 음성 외에는 아무 소리에도 기쁨이 없

음을 알게 해 주시고 주님 밖에서는 아무런 삶의 궁극적 의미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며 주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 삶은 허무하고 덧없음을 확인시켜 주시사 이 한 해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위하여 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홀이 풍성하신 하나님!

말로만 주여, 주여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38년된 병자처럼 앓은행이가 되어 버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슬한 부정과 불의를 눈여겨 보지도 않았고 더구나 분노하지도 못했습니다. 기막힌 위선에 익숙하여 양심은 마비된 채 그대로 지나쳐 버리는 의식하는 제사장의 땅이 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변명하며 지나치는 말만 늘어놓는 레위인이 난무하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답게 이루어지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법대로 돌아 가고 교육이 하나님의 뜻을 펴는 도구로 되게 하사 이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집안이 어렵고 교육이 이즈러지고 경제가 바닥을 활고 정치가 제구실을 못하는 이때, 주님 앞에 진실로 겸허한 마음을 갖고 머리 숙일 수밖에 없사오니 공홀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민족적 결단이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가지 더 구하겠나이다.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센터가 될 새예배당을 짓는 한 해가 되게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IMF 시대의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으나 가난한 정복을 믿음으로 단행했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겠사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평강으로 채우시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을 믿고 구하옵나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병들지 않게 하시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이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낳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이 기도문은 송구영신예배 시 드린 목회자의 기도 전문을 옮긴 것입니다. ○

▶ 순례자 긴급동의

“민족적 회개를 촉구하면서”

1월은 민족 회개의 달

풍랑 만난 조각배처럼 작금 우리의 조국은 심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표류하고 있다. 어디로 가야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병든 사람처럼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무기력하게 떠내려 가는 모습은 우리 민족 전체를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안타까움에 빠지게 한다.

무엇이 우리나라를 이 모양이 되게 만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 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대하29:8).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산 백성은 망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대하 29:5).

특히 교회와 책임진 목회자들의 성결이 먼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 멀리 떠나 왔다. 오늘도 회개를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나라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들어야 한다.

“다윗은 장로들과 더불어 굶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얹드려 ...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행악자는 곧 내니이다”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지금은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민이 마음을 찢고 베옷을 입는 심정으로 애통하는 기도를 드리고 참회하는 시

간을 가져야 한다.

한국교회는 7천만 동포들이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을 불러 일으켜 기울어가는 국운을 반전시키는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선언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 ① 우리는 오늘의 비통한 현실을 하나님의 진노로 믿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좇던 불신, 불충, 불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자복한다.
- ② 우리는 이같은 회개운동을 거국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1998년 1월 한 달을 ‘민족회개의 달’로 정하고 베옷을 입는 심정으로 극기의 삶을 산다.
- ③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정직, 절제, 사랑을 실천함할 때 민족의 살 길이 있음을 믿고 이를 국민 정신으로 승화하도록 힘쓴다.

▶ 순결서약식을 하는 아들에게

네게 배운 순결의 의미

이 강인 집사(12교구, 사랑부 교사)

3Kg이 채 안되는 몸으로 태어난 네가 순결서약을 하기까지 장성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 주신 하나님께 아빠는 먼저 큰 감사를 드린다.

네가 막 팔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으냐?”하고 물었을 때 아빠와 엄마는 네가 당연히 “아빠 엄마가 제일 좋아!”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제일 좋아!” 라고 말하여 우리 부부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일이 새삼 생각나는구나.

올해 순결서약식을 하게 될거라면서 “아빠 엄마는 왜 순결서약을 안하세요?” 라고 묻는 네 앞에서 아빠 엄마는 약간 당황하기도 했고, 잠시 네가 순결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서약식에 참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만 순결의 의미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마음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라는 너의 말이 어떤 면에서는 옳다고 여겨져 이번에 너의 순결서약식을 지

켜보기로 했단다. 그리고 네가 순결서약식에 참가하는 날 아빠와 엄마도 너와 함께 예수님 앞에서 마음의 순결을 서약하기로 했단다.

네가 신앙에 홀로서기까지 부모는 당연히 자녀인 너의 신앙을 지켜주어야 한다만 어떤 때는 너의 깨끗한 신앙을 보면서 아빠가 너의 신앙을 배운 적도 여러 번 있단다. 온 가족이 주일에 함께 찬양에배드리는 것이 너의 기도제목이라고 말하여 아빠를 부끄럽게 했던 너, 학교 임원을 하게 되면 주일에 수련회를 가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교 임원을 굳이 피한 너, 주일에 학교에서 캠프를 간다고 울먹이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직접 캠프장으로 가겠노라고 우기던 너, 그 때는 왜 그리 고지식하냐고 야단도 쳤지만 그런 너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 아빠 엄마는 한참 후에야 깨달았다.

아빠는 너를 위해 항상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 윤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윤재는 불쌍하고 소외된 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윤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예, 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는 윤재가 큰 그릇이

되기보다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기회를 선용하자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지혜요 힘이다. 지나간 다음에 애절한 탄식을 하는 것 보다 주어진 때에 오용하거나 남용치 말고 선용할 수 있어야 한다.

축복의 기회를 선용해야겠다. 소득이 늘어간다고 사치에 취해서는 안되며 명성이 높아가도 교만에 취해서도 안되고 정권을 잡아도 권력에 취해서는 안된다. 축복에 취하다보면 실패를 해야 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봉사할 기회도 선용해야겠다. 남의 약점을 보았을때는 그를 헐기 전에 그를 돕는 길을 찾는 것이 같은 약점을 가진 인간의 할 일이다.

용서할 기회를 선용해야 한다. 원수에게 저주를 퍼붓기 전에 이때를 용서의 기회로 만들 수는 없겠는가?

“주여, 기회를 잃는 것은 곧 영원을 잃는 것인가 하옵니다.”

새 예배당 소식

대지 대금 완불

새 예배당 대지의 대금을 지난 12월 31일에 완불했다.

우리 교회는 강남구 대치동에 새 예배당 터전을 마련하고 1995년 9월 31일 계약을 한 이후 2년 3개월 간 분할 상환기로 하고 그간 8차례에 걸쳐 98억 8천 520만원 전액을 약속대로 지난 12월 31일 완불했다.

이날 목양교회 유관지 목사로부터 영수증을 받아든 이종운牧사는 재정위원장 오정수 장로와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에 감격하며 감사했다.

'98 청지기수련회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주제로

1998년도 청지기수련회가 개최된다. 이번 청지기수련회의 주제는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 5:17)이다.

청지기수련회가 개최되는 5일(월)부터 10일(토)까지의 새벽기도회는 종전과 변함없이 5시 30분에 시작한다. 새벽기도회 후 5시 50분부터 6시 30분까지는 요일별로 교회학교

교사, 예배위원, 찬양대원, 전도회 임원, 교구 일꾼, 장로·안수집사 등 직분자별 특강이 실시되며 강사는 각 위원회 지도 목사이다.

특히 11일(주일) 찬양예배 시에는 이종운 목사를 강사로 청지기 헌신예배 및 제직수련회가 개최되는데 청지기 전원의 참여가 요망된다. '98청지기수련회 일정은 표와 같다.

1998년도 청지기수련회 일정

구분	교회학교교사	예배위원	찬양대원	전도회임원	교구일꾼	장로·안수집사	청지기 전원
일자	5일(월)	6일(화)	7일(수)	8일(목)	9일(금)	10일(토)	11일(주일)
5:30	새벽기도회						(찬양예배)
5:50	교회학교 운영의 실제	예배위원의 자세	찬양과 예배	효과적인 전도회 운영	교구일꾼의 역할	중직자의 사명과 자세	청지기 헌신예배 및 제직수련회
6:30	박귀환 목사	이순환 목사	민영수 목사	김정현 목사	이순환 목사	이성득 목사	이종운 목사

선교주일에 외화 모으기

1월 마지막 주일은 선교주일이다. 우리 교회는 이날 주일 I·II·III부 예배 시에 선교헌금을 드리며 일년 간의 선교헌금을 작

정하는 순서를 갖는다.

특히 이날 헌금은 국적과 종류에 관계없이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외화도 모아 드리기로 했다.

통독사경회 마쳐

신정 연휴 기간인 2일(금)과 3일(토)에 통독사경회가 열렸다. 90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이번 통독사경회에서는 신약성경 전권을 통독했다.

다섯 분의 목사님들이 차례로 선두에서 큰 소리로 성경을 낭독하고 각 장이 끝날 때마다 참가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시종일관 활기있게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 위에 신앙을 더욱 견고히 서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위원회 명단 추가

지난 주 제채된 위원회 명단 중 계수위원회 손태기 서상근 김형배를 추가합니다.

“100교회 운동에 참여합시다”

농어촌미자립 교회를 돕는 '100교회 운동'이 새해에도 계속된다.

100교회 운동본부에서는 기존의 후원자들뿐 아니라 새롭게 이 일에 참여할 성도들의 신청도 기다리고 있다. '100교회 운동'은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결연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것으로 한 가정이나 개인별 혹은 전도회, 다락방, 교회학교 찬양대 등이 협력하여 참여할 수도 있다.

우리 교회는 교회설립 3주년을 기해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돕는 '100교회 운동'을하기로 결정하고 1995년 1월부터 이 운동을 시작했다. 남·녀전도회, 다락방, 교회학교, 찬양대 그리고 개인과 가정 등이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결연하여 1995년에 106개 교회, 1996년에 110개 교회, 1997년도엔 117개 교회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했다. (문의: 전도위원회·이상진 목사)

동정

◆ 이종운 목사는 7일(수) 장신대 총동문 및 전국교역자부인회수련회에서 강연하며 8일(목)에는 연·고대 목회자동문 신년하례회에서 말씀을 전한다.

◆ 이용자 권사(4교구)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선교학과에 입학했다.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2. 청지기수련회를 위해
3. 나라와 민족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위치

